

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

■ 개요

- 일시: 2019. 9. 27(금) 14:00~17:00
- 장소: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
- 주최: 더불어민주당 김상희, 진선미, 자유한국당 김세연, 이명수, 민주평화당 김광수, 정의당 윤소하
- 주관: 대한간호협회,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- 후원: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일자리위원회

■ 취지

- 의료기관은 여성노동자가 80%이상이며 20-30대 가임기 여성이 70% 이상으로 모성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나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임.
-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간호인력의 경험과 역량이 매우 중요함. 따라서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이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모성보호 및 일-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.
- 본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간호인력의 근무지속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다수 사업장인 의료기관에서 모성보호제도 필요성의 공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■ 프로그램(안)

시 간	내 용
13:30~14:00 (30')	접수 및 등록
14:00~14:30 (30')	사회: 양윤선 (국회방송 기자) 국회의원 인사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
14:30~15:30 (60')	좌장: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1 ♦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 : 연간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- 안중기(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) 발제 2 ♦ 간호사의 모성보호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- 정재수 정책실장(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) 발제 3 ♦ 간호사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: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- 박선영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 위원)
15:40~16:40 (60')	지정토론 ♦ 정영호(대한병원협회 부회장) ♦ 유재선(대한간호협회 이사) ♦ 박혜원(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 사무관) ♦ 이현옥(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) ♦ 홍승령(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장)
16:40~17:00(20')	전체토론 종합토론 및 마무리

※ 사정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